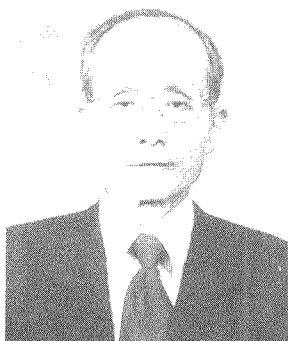


민족의 화해를 위한 진통

김낙중



김낙중 nfkgc3@kornet.net | ● 1951년 서울대 사회학과 입학. 1955년 서울대 중퇴. 평화통일안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평양행. 1956년 서울로 귀환. 간첩 및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 1957년 고려대 경제학과 편입. 1963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3년 6월 징역. 1967년~1973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원. 1973년 간첩과 내란선동죄로 다시 7년 징역. 1986년~1992년 민족통일촉진회 정책의장. 1990~1991년 민중당 공동대표.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언도. 1999년 8월 15일 형 집행정지로 출소. ● 저서로는 『한국노동운동사(해방후편)』(1982), 『굽이치는 임진강』(1985), 『사회과학위문』(1986), 『민족통일을 위한 설계』(1988) 등이 있다.

나의 출생, 성장과 전쟁

나는 1931년생이다. 1931년은 일본제국이 만주사변이라고 부른 중국침략을 시작한 바로 그해였다. 그리고 이어서 1937년 중일전쟁이라고 부르는 일제의 중국대륙침략의 화약 냄새를 맡으면서 소년이 되었고, 국민학교 시절에는 태평양전쟁이라고 부른 제2차세계대전을 위해 조선의 어른들이 징용된 상태에서 소년들은 모내기, 벼 베기, 관솔 따기, 마초 베기 등의 일에 동원되면서 자라야 했다.

그러다 중학교 1학년 시절인 1945년에 8·15를 맞았으나 미소에 의한 남북 분할 점령과 두 개의 분단정부 수립 그리고 6·25라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서 삶을 시작해야 했다. 나는 출생부터 성장의 모든 과정이 운명적으로 전쟁과 밀접하게 연결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니 ‘내가 살아온 이야기’란 나에게 운명적으로 강요된 전쟁과의 피나는 싸움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가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역사와 사회 속에 던져져 성장의 어느 시기가 되면, 비로소 자기 삶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뿐이다.

나의 선택과 삶의 방향

내가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한 것은 1954년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사회학과 학생으로서 내 나이 24세가 되던 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일제 식민지하 조선의 소년으로서 ‘미·영 격멸’이라는 ‘미·영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자랐다. 그런데 1945년 가을 그 미·영은 우리에게 ‘해방자’라며 나타났고,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다시 ‘민족 분단자’로 또 동족상잔의 ‘전쟁 지원자’로 탈바꿈하였다. 나는 사회주의며 좌파가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니 우파니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분명히 이 땅에 두 개의 ‘국가’라는 괴물이 나타나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 총칼을

들라”고 강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런데 그 서로라는 것은 한마을에서 자란 친구들이고, 한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우들이며 동포형제들이었다.

6·25 전쟁이 나던 해에 나는 서울중학교 5년생이었고 20세였다. 전쟁이 난 지 며칠도 안 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상이 되었고, ‘조국해방’을 위해서 따발총을 들고 의용군이 되어 낙동강 전선으로 가서 국군을 죽일 것을 강요받았다. 실제로 내 고향의 많은 국민학교 동창들이 의용군으로 나갔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9·28 수복이 되어 ‘대한민국’ 치하가 되니 이번에는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제2국민병 등록을 하고, 칼빈총을 들고 국군에 나가서 인민군을 죽여야 한다고 강요했다. 이때에도 나의 많은 서울중학교 친구들은 국군에 나갔다.

그런데 나는 인민군 치하에서는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 살았고, 9·28 이후에는 미군부대의 식당종업원으로 취직을 했으며 1·4 후퇴 때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부산에서 학교에 등록을 하니 징병 연기 조치를 받을 수 있어서 자동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군에 나가지 않아도 좋은 신분이 획득되었다. 그래서 나는 피난 수도 부산에서 무사히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학 2학년 즈음해서 나는 내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할 입장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 배 밖에 나서 그동안은 운명적으로 주어진 삶을 역사·사회의 바람과 물결에 따라 피동적으로 살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고 앞으로는 자신이 살아갈 방향을 찾아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역사·사회적 현실은 강대국에 의해 분단된 민족이 치열하게 동족상잔을 하고 있었다. 대학생인 나는 대학 학도호국단의 독촉을 받으며 가두시위에서 ‘휴전반대·북진통일’을 외치는 데 동원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눈물을 가진 사람은 없는가?

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무력북진통일정책에 따라 ‘휴전반대·북진통일’을 외치는 가두시위에 불려 가는 것에 마음으로 동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로서는 ‘휴전반대·북진통일’을 결코 찬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51년부터 1953년 휴전 직전까지 일선지구에서는 계속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거나 부상당하여 후송되고 있었다. 나는 당시 밤에는 부산 부두에 있는 철도국에서 일했기 때문에 매일 매일 그것을 목격하는 처지에 있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군에 입대하지 않고 부산까지 피난을 와 대학에 다니고 있으면서, ‘휴전반대·북진통일’ 데모나 한다는 것이 양심상 도저히 허락될 수 없는 일이었다. 왜 우선 휴전을 하고, 평화적 통일의 길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인민군의 배후에는 중국과 소련이 있고, 국군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는데 미·소가 핵전쟁으로 결판을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일방적 무력통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 민족끼리 얼마나 더 서로 죽여야 한단 말인가?

당시 남한 사회에는 그 누구도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반대·북진통일’ 정책을 반대하지 않았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었고 또 죽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휴전반대·북진통일’로 전쟁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가? 자비를 설교하신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사랑을 설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도 ‘휴전반대·북진통일’ 정책을 반대한다는 사람은 하나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난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도대체 눈물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인가? 눈물이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에 애착할 필요가 있거나 한 것인가? 그래서 나는 내가 태어난 이 겨레 속에 “눈물을 가진 사람은 없느냐?”고 사람을 찾으러 나서기 시작했다. 목욕재계하고, 이 겨레를 상징한다는 하얀 한복을 입고, 등불을 켜 들고, 광복동 거리를 오르내리며 “눈물을 가진 사람은 없

느냐? 이 겨레의 젊은이들이 동족상잔으로 죽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 줄 사람은 없단 말이나? 북진통일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찬동하는 사람은 없느냐?” 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그후 50년 동안 내 운명의 방향은 오직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길 위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의 방향을 바꿀 의사가 조금도 없었다. 내 운명은 겨레의 운명과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으며, 내가 사는 길과 겨레가 사는 길이 둘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1955년 2월 정식으로 「통일독립고려청년공동체 수립안」이라는 평화통일방안을 작성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청원서로 제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남과 북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점차 성장할 청년들에게는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국가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그것은 뒤에 『민족통일을 위한 설계』라는 책으로 발간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무력적화통일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 공산당들”과의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놈은 미친놈이라며 나를 정신병자 취급했다. 그래서 나는 북한 사람들이 과연 6·25의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도 아직 ‘무력남침’만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북에 가기로 결심하고 고향 파주에 내려가서 임진강을 건너기로 하였다. 나는 1955년 6월에 내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평화통일방안을 가지고 임진강을 건너 북한에 갔다.

북한에서는 내가 단독으로 「통일독립고려청년공동체 수립안」이라는 평화통일방안을 만들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더구나 경비가 엄하고 지뢰가 가득 매설된 휴전선의 임진강 변을 국군 몰래 단독으로 월북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남측에서 누가 보내서 왔는지를 자백하라고 강요당했다. 나는 열흘 만에 평양 내무성 예심처라는 곳의 감방에 투옥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에는 남한 내무부 치



91년에 통일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안국 특수정보과 중앙분실장 오 모 씨가 한미 합동으로 투입한 특과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치안국 특수정보과 중앙분실장이 오 모 씨라는 것을 안 것은 경무대에 제출한 내 평화통일방안에 관련해서 그가 나를 취조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한미 합동으로 북에 투입된 사람이지만, 내가 갖고 간 평화통일방안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알아오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했다. 그때 옆방에는 평생을 공산주의 운동을 했고, 북한 부수상을 역임했다는 박헌영 씨가 미제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벌써 1년 이상 옥중에 있는 현실이었는데, 25세의 피라미 같은 내가 아무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평화통일을 위해 북에 온 것이라고 고집해 봐야 통할 수 없다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갖고 온 평화통일방안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든, 그에 대한 북측 사람들의 뜻을 아는 것이 나의 월북목적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곧바로 '미제의 고용간첩'이라는 죄목으로 기소되어 머리가 박박 깎

였다. 나는 얼마 안 있어 평양 옥중에서 단식투쟁을 결심했다. 그러나 내가 단식투쟁을 시작한 지 며칠도 안 되었는데, 그리고 북측의 관 당국은 내가 단식투쟁을 시작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옥에서 나와 남측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의 옥중단식을 북측 당국이 알지 못한 것은 내가 먹지 않은 밥을 같은 감방의 옆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인데, 그들은 늘 배가 고팠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그것을 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북측 당국의 요구는 나를 보낸 남측 당국에 가서 자기들이 「통일독립고려 청년공동체 수립안」을 그대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측이 원하면 언제든지 토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언뜻 그들의 요구대로 남으로 돌아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 우선 내 몸은 극도로 쇠약해 있었고, 머리는 박박 깎인 상태였으며,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경우에 다시 미친놈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건강을 되찾고 박박 깎인 머리칼이 자랄 때까지는 결코 남측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버텼다. 나는 결국 평북 용암포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약 6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다시 평양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1956년 6월에야 판문점 부근의 휴전선을 넘어 남한으로 송환됐다.

북한 간첩이라는 것

나는 1956년 6월 20일 오전 8시경 판문점 부근의 대로로 휴전선을 넘어 걸어왔다. 휴전선남방한계선을 넘자마자 나는 바로 미군 보초에 의해 연행되었고 3개월 동안 미군 방첩부대가 관리하는 포로수용소에서 갖은 조사를 다 받고 1956년 11월경에 서울시경 사찰과로 넘겨졌다. 나는 경찰 당국에 의해 북측에서 1년간이나 간첩교육을 받은 대남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아 온갖 고문을 겪어야 했다. 그 고통스러움을 견디기보다는 북에서 간첩교육과 간첩 훈련을 받았다는 허위자백이라도 하고 사형당하는 것을 백번 택하고 싶었지만, 북한의 간첩교육 기관이나 간첩훈련 내용에 관해서 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허위자백조차 할 수 없었다. 고문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서울형무소에 송치되었을 때, 나에게서는 형무소의 두꺼운 벽이 나를 보호해 주는 성채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결국 나는 간첩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은 나를 간첩죄 혐의로 보면 무죄이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협의했다는 죄로 1년 징역형을 언도했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다시 집행유예로 나를 세상에 나오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나의 월북사건의 끝이 아니었다. 그후 나는 고려대학교에 편입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가, 1962년 10월 입대 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했다. 그러던 중 1963년 군사정권하에서 학생들이 “한미행정협정을 체결하라”고 가두시위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권은 그 사건은 학원 간첩 김낙중이 배후에서 조종했기 때문이라며 나를 다시 간첩 사건의 두목으로 연루시켰다.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는데, 고등군법회의에 가서는 ‘반공범위반죄’ 라며 3년 6월형을 언도받아 서울형무소와 수원형무소에서 복역해야 했다. ‘반공범위반죄’ 라는 것의 내용은 내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북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들도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는데 이것은 북의 장점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한 것이 반국가단체고무찬양죄이고 또 내가 과거 북에 다녀온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된 어느 젊은이가 그 길로 월북을 했으니 반국가단체로의 월북방조죄라는 것이었다.

그후 나는 결혼을 하고 3남매의 아버지가 되어 정치적 활동을 극히 조심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강사가 되었고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노동교육의 일환을 담당했었다. 그러나 나의 몸조심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지는 못했다. 1972년 10월 유신이 있는 다음 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10월 유신 반대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민우」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학생들의 책상에 집어넣은 일이 있었는데 그 유인물에 “왜 헌법을 제멋대로 파괴하

고 유신헌법을 만드느냐?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보부가 이 학생들을 잡아놓고 보니 ‘긴급조치법’이란 것도 만들기 전이라서 그들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았던 모양이다. 결국 그 학생들을 빨갱이로 모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리 가택수색을 해 봐도 빨간 책이 안 나와서 궁리해낸 것이 과거 월북했던 경력이 있는 김낙중을 써먹자는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학생들에게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노동문제연구소에 근무하는 김낙중이란 사람을 아는지 물었고, 그 가운데 나를 아는 학생이 있었던 죄로 내가 그 학생들을 모아 놓고 10월 유신을 반대하는 내란을 하라고 선동했다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 과거 북한에 가서 1년간 간첩훈련을 받고 학원에 장기 잠복한 김낙중이란 간첩이 학생들의 내란을 선동했다는 것이다.

검찰 당국은 내란선동죄가 성립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1970년 서독의 에버트 재단이 주최하는 노사관계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여권을 신청했던 일을 이유로 간첩예비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때 만약 서독 여권이 나왔다면 서독과 동독을 거쳐 반국가단체 지배지역인 북한으로 탈출하려고 『경제통계연감』 등을 수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염려와는 무관하게 나에게 내란선동죄 및 간첩예비죄 등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7년 징역형을 언도했다. 7년 징역형이란 간첩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이었다.

나는 7년의 징역형을 고스란히 복역하고 1980년 4월에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나는 정치활동금지법에 의하여 활동이 제약되었고 사회안전법의 대상이 되어 일거수일투족이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민족의 화해를 위해 “눈물을 가진 사람은 없느냐?”고 찾아 나선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 출소 후 ‘내가 살아온 길’에서 민족 화해를 위한 진통은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평화로운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하여

7년 징역형을 고스란히 살고 1980년 4월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내 3남매 자녀들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하에서 나는 거의 전 기간을 그동안 감옥에서 구상했던 몇 가지 책을 쓰는 데 보냈다. 『한국 노동운동사(해방후편)』나 『사회과학원론』 등과 같은 학술서도 있었고 『굽이 치는 임진강』이라는 나의 자서전도 있었다.

1987년 이후 노태우 정권은 양양된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영향도 있었고, 정권의 정통성이 취약했던 까닭에 이를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에서의 전향적인 정책으로 매우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겨레의 평화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다. 나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이강훈, 이인, 김재호, 송남현 선생님 등이 만든 <민족통일촉진회>에 가입하여 <민족통일>이라는 회지를 만들면서 그분들을 돕게 되었다.

그러다 1989년 나는 <민족통일촉진회> 정책의장이라는 직책으로 국회통일분과위원회에서 주최한 '통일문제에 관한 공청회'에 나가서 「3차 7개년 계획에 의한 4단계 평화통일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 요지는 당시 남측에서 주장하고 있던 국가연합식 통일방안과 북측에서 주장하고 있던 연방제식 평화통일방안을 서로 다투지 말고 순차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그 내용은 각 신문에 널리 보도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나에게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1990년 봄 어느 날 내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 자기는 부산대학교에서 강사로 있는 사람인데 노동문제에 관한 문의를 하기 위하여 집으로 방문하고 싶은데, 몇 시쯤 집에 돌아가는지를 물었다.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7시쯤에는 집에 간다고 대답했다. 저녁 8시경에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 나가 보니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낮에 전화를 했던 사람이라기에 나의 서재방 응접실로 그를 안내했다. 그 응접실은 내가 대문 바로 앞 반지하에 만든 조용한 방이었다.

내가 자리에 앉으니 젊은이는 앉았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저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 주석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국회에서 발표하신 평화통일방안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함께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나는 어안이 병병해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가 혹시 나를 시험해 보기 위해 중앙정보부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말을 했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말을 나눈 뒤에 드디어 그가 진짜로 북측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젊은이가 그날은 인사만 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며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그 때문에 몇 날 몇 밤을 고민하며 지냈는지 모른다. 내가 당국에 신고하여 저 젊은이를 잡아 주면 저 젊은이가 회생될 것이고, 내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처벌받아 회생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그를 당국에 신고할 수 없었다. 신고하지 않고 그를 만나 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 보기로 했다. 부당한 요구를 하면 물리치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후 나는 1992년 봄까지 3차례 걸쳐 북측에서 보내온 사람들을 만났다. 1990년 제1차로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통일을 위해서는 조직적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고 하면서 나에게 지하당 조직을 하자고 했다. 나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지금 이 밝은 남한 천지에서 지하당 사업을 해 무엇을 어찌하는 것인가? 지하당 사업이 제대로 될 리도 없겠지만, 몇십 몇백 명을 지하당원으로 조직한다 한들 그것으로 무엇을 어찌겠다는 것인가? 그런 말을 하려거든 다시는 나를 찾지 말고 북에 가서 책상머리에 앉아 남조선 혁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김낙중이란 사람은 그런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전해 달라며 돌려 보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제2차로 사람들이 찾아왔다. 제1차로 찾아왔던 젊은이가 그에 비해 나이가 꽤 많은 간부급 사람을 데리고 왔다. 나이 많은 사람은 지하당 사업 같은 것이 안 된다는 나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자고 했다. 나는 그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무척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당시 내가 그들과 나눈 이야기는 대부분 그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통일정책과 상치되는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유엔 가입문제에 대해서 당시 남한 측은 남과 북이 동시가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반해, 북한 측에서는 유엔에 단일국가로 가입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나는 유엔에 남북이 단일국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선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해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점차 평화통일의 길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고 설득했다. 그리고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북한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무력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압력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지만, 우선 민족이 살아 남고 보아야 할 것이니 싫어도 우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들어간 다음 안전 보장 확보의 길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설득했었다. 그 밖에도 대미 정책의 경직성을 시정할 필요성, 자본과 시장에 대한 이해의 문제 등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나는 기탄없이 내 의견을 말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북측 사람들에게 한 말은 모두가 그들의 공식적인 주장과는 같지 않은 의견이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간 그들이 북에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했는지 또 북측의 상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민중당 대표가 되어 총선거를 위한 당 선거대책본부장을 하고 있던 1992년 초에 제3차로 북에서 사람을 보내왔다. 그해 3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중당이 합법정당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선거운동 자금으로 보태 쓰라고 돈을 한 무더기 갖고 온 것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국가에서는 사상과 이념이 다른 사회주의자들도 합법정당을 통해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당시 나는 우리 민족도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려면 남한의 민자당과 북조선의 노동당이 평화롭게 합법적인 정치활동으로 권력경쟁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남한에서의 비합법 지하당이 아니라 합법적 진보정당 출현을 지지하게 된 것은 역사의 진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이 갖고 온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꺼림칙했으나 그들은 그것을 도로 갖고 갈 수 없다며 놓고 갔다. 그들이 갖고 온 돈이란 모두 달러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남대문 시장에 가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거니와 돈을 쓴다고 꼭 당선이 되는 것도 아니었기에 나는 일부만을 한화로 바꾸어서 입후보한 몇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총선거는 '민중당'에서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으며, 나는 1992년 8월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을 언도받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밀을 탐지해서 팔아먹은 일도 없었고, 대한민국의 타도를 위해서 활동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진 일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두 개의 국가적 실체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북측에서 민중당을 위해 보내온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잘못이었다고 뉘우쳤다. 그것은 남과 북이 서로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전향서와 준법서약서를 썼다. 나는 1998년 8월 15일에 형 집행정지로 출소했으나, 아직 사면을 못 받아 공민권이 없는 처지이다. 내가 노력한 것은 남과 북이 서로 타도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쌍방 당국과 쌍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몸부림친 것뿐이었다. 남과 북, 좌와 우가 갈리어 서로를 타도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해서 싸우는 세상에서 “눈물을 가진 사람은 없느냐?”고 외치며 살아온 나의 일생은 내가 혼자 겪기에는 너무도 큰 진통이었다. 그러

나 몇 번씩 죽음을 요구받았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가 필경은 민족의 화해를 이루어 내교야 말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나는 비록 우리 민족이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내일을 떠맡을 젊은이들을 믿고, 지금 이대로 눈을 감아도 될 것 같아서 감사할 뿐이다. ■